

광주 최대 미술축제 준비 본격화... 작품 첫 공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해포식

미국 출신 맥스 작 '용해의 들판'
새로운 풍경과 대안 생태계 구현
전시작 80% 운송 완료... D-19일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작품이 처음 공개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19일 비엔날레전시관 3전시실에서 작품 해포식을 열고 광주에 도착한 해외 작품 중 처음으로 미국 출신의 맥스 후퍼 슈나이더(Max Hooper Schneider) 작 '용해의 들판(LYSIS FIELD)'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작품을 포함해 현재까지 전체 전시작품 80%가 운송이 완료된 상황이다.

니콜라 부리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은 첫 작품 공개에 대해 "창설 30주년에 열리는만큼 참여작가들의 신작 위주로 전시를 준비했는데, 오늘 공개된 작품은 가장 신작 중 하나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새로운 시대 유기적 생물의 분자 형태라 설명할 수 있으며 이번 광주비엔날레 주제인 공간과 대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재료로 구성돼 변화무쌍한 우리의 세계를 반영하고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함께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작품은 광주비엔날레 본관 전시 중 '피드백 효과' 즉 '부딪히는 소리'를 주제로 한 제3전시장에 설치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들이 19일 북구 비엔날레 전시관 3전시실에서 해포식을 갖고 맥스 후퍼 슈나이더 작가의 '용해의 들판' 작품을 공개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 주제로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린다. 나건호 기자

이날 공개된 모습은 전체 조각 6점 중 1점으로, 전체 설치가 완료되면 가로와 세로 각각 10m 크기에 이른다. 이번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일 신작 중 가장 큰 규모다. 특히 관람객들은 동선에 따라 완성된 작품 안으로 들어가 보는 체험도 가능해,

작품과 관객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며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공개된 작품을 만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출생인 맥스 후퍼 슈나이더 작가는 생태계 붕괴, 대기 이상 현상, 환경의 변성, 자본주의 약탈 등과

같은 주제를 탐구하며 살아있는 풍경을 창조하는 작업을 펼쳐오고 있다. 일상 속 사물과 폐기물, 산호초 등을 병합해 인류 세 시대 새로운 꽃과 동물, 생물이 거주하는 대안 생태계를 제시한다.

작가의 상상으로 살아난 장면들은 세상

의 파괴와 혼란스러움을 품고 또 다른 생명의 지대가 된다. 이를 통해 생물 다양성과 역동성이 담긴 풍경으로 우리 시대의 다양한 장면을 구현한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Pansori,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86일간 펼쳐진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아티스트는 크게 세 축으로 나뉜다. 먼저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본관전시, 광주 최초 근대식 마을로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남구 양림동, 창설 30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대로 기획한 파빌리온 31곳이다.

양림동까지 이어지는 본전시에는 30개국 72인의 작가가 참여한다. 광주비엔날레의 큰 주제는 '판소리'로 공간(판)에서 울려 퍼지는 여러 소리라는 개념에 착안했다. 동시대 미술을 통해 기후위기, 서식지 파괴, 분쟁 등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는 전 지구적 공간을 탐구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주비엔날레 본관전시는 △부딪침소리(Larsen effect) △겹침소리(Polyphony) △처음소리(Primordial sound) 3개 섹션으로 구성되며 음운 현상과 관련한 개념이다. 이 외에도 양림동으로 이어지는 전시와 광주지역의 미술관, 갤러리, 문화기관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문화센터 등지에서 펼쳐지는 31개 국가관 파빌리온이 준비돼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장애인미술협회 '피어오르다'

내달 15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사)광주장애인미술협회(회장 문경양)가 기획한 '피어오르다'전이 오는 9월 15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장애를 예술로 승화시킨 영남·호남 작가들이 모여 예술적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1992년 5월에 창립된 광주장애인미술협회는 장애를 가진 미술가들의 권익 보호와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설립됐으며, 현재 150명의 장애인 작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한 이번 영·호남 교류전은 광주장애인미술협회와 대구장애인미술협회, 전북하나창작지원센터 회원들이 함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펼쳐진다.

이번 교류전에는 작가 51명이 참여했으며 서양화·한국화·목공예·금속공예·나전칠기 등 다양한 장르를 감상할 수 있다.

작가들은 각자 저마다의 개성과 세계관을 표현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여 일상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마유진 작 '행복한 하루'.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문경양 광주장애인미술협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작의 열정을 불태우며 작업 활동에 매진한 작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장애 예술인들의 꿈과 희망이 피어오를 이번 전시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갤러리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관람료는 무료다. 저녁 공연 있는 날은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한다. 도선인 기자

“여우 아저씨처럼 다 읽은 책 맛있게 먹어볼까”

ACC, 청소년도서 우수 콘텐츠 전시 ‘책 먹는 여우, 도서관을 삼키다’展 10월 20일까지 ACC어린이문화원

“여우 아저씨가 책을 다 읽은 후 ‘소금 한 줍 톡톡, 후후 조금 톡톡’ 뿌려 책을 먹어버리는 상상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ACC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 우수 콘텐츠 ‘책 먹는 여우, 도서관을 삼키다’ 초청 전시를 개최한다.

주니어 김영사와 독일 아동도서 작가인 프란치스카 비어만(Franziska Biermann)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ACC 어린이문화원에 맞춰 새롭게 기획·제작했다.

프란치스카 비어만의 ‘책 먹는 여우(Herr Fuchs mag Bucher!)’는 2001년 출간 이후 14개국에 번역돼 소개되며, 전 세계 어린이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국내에서만 90만 부 이상 판매됐으며 초등 1학년 권장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ACC 전시는 △쉬어볼까, 읽어볼까 △책 맛있게 먹어볼까 △거닐어 볼까, 그려 볼까 △찾아볼까 △써볼까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해 여우 아저씨가 책을 읽고, 먹고, 쓰고, 찾아가는 모습을 쫓아간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고, 건강과 휴식을 위한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읽는 능력을 키우도록 이끈다.

특히 어린이 관객들이 작가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편지로 보내는 ‘구절절’ 코너가 운영된다. 이 편지들은 프란치스카 비어만 작가의 다음 이야기인 ‘책 먹는 여우, 가을 이야기’ 편 구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시와 함께 어린이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도 진행된다. 여우 아저씨의 친구인 ‘화가 미라의 스튜디오’에서는 초상화를 그려보고 여우 아저씨가 면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또 ‘여우 아저씨의 이야기 창고’에서는 인공지능 동작인식 미디어로 여우 아저씨가 나의 동작을 따라하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이어 9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책 먹는 여우’를 함께 읽고 빵으로 책을 만들어 여우 아저씨처럼 먹어보는 전시 연계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도선인 기자



장성 백양사 ‘뉴진스님’ 온다

10월 25-26일 ‘백양뮤직 페스티벌’ 플라멩코·샹송 등 출연 그룹 다채

사찰 속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다.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스님)는 ‘2024 백양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백양사박물관 앞마당에서 개최된다

고 밝혔다. 행사는 ‘Sound of Earth, Sound of Life(지구의 소리, 생명의 소리)’라는 주제로 열리며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이어진다.

페스티벌 1일차에는 판소리와 플라멩코를 접목해 새로운 국악 세계를 보여주는 ‘소리계떼’(Soriqete), 국내 최

고의 라틴음악 연주밴드인 ‘코틴그룹’(Kotin Group), 소리꾼 추다혜가 이끄는 ‘추다혜자지스’가 출연한다.

2일차에는 국내 유일의 포르투갈 음악 파두(Fado)를 연주하는 ‘소뉴’(Sonho), 플라멩코와 민요를 콜라보해 선보이는 월드뮤직 그룹 ‘토케토리’(Toque-Tori), 요즘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뉴진스님이 마지막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페스티벌 예술감독은 공연기획 전문가인 장용석 씨가 메가폰을 잡았다. 장용석 감독은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빛고을뮤직페스티벌 등 300회 이상의 공연을 기획, 연출한 바 있다.

백양사 관계자는 “올해 첫 회를 시작으로 힐링음악 전문페스티벌로 발돋움할 계획이다”며 “스페인 플라멩코, 프랑스 샹송, 브라질 보사노바, 포르투갈 파두처럼

일반적으로 각 나라, 각 지역의 민속음악에 뿌리를 두고 대중음악과 접목된 음악을 선보이는 페스티벌이다. 멜로디를 넘어 각국의 역사와 삶의 양식 등 문화 응결체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본사 천년고찰 백양사가 주최·주관하고 전남도와 장성군이 후원한다. 도선인 기자